

제6차 ASEM 정상회의의 성과와 시사점



박 인 국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2006년 9월 10~11일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아시아와 유럽의 38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ASEM은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아시아, 북미, 그리고 유럽 중에서 상호 협력관계가 미약했던 아시아와 유럽간의 관계강화를 목적으로 1996년 출범하여 2년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왔는데, 이번 정상회의는 그 여섯 번째 만남이었다.

이번 회의는 “10 Years of ASEM: Global Challenges – Joint Responses”라는 주제가 함축하는 바와 같이 ASEM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ASEM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참가국 정상들은 이틀간

에 걸쳐 ASEM의 3대 pillar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주요 이슈에 관해 논의하고 「의장성명서」, 「기후변화에 관한 선언」, 「ASEM의 장래에 관한 선언」 등 세 개의 결과문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의 조속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ASEM 회원국 정상들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노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서 최초로 다자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중장기 외교 목표 중 하나인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구상을 천명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공동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의장성명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됨으로써 향후 이 구상의

실현을 위한의미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가 개최된 헬싱키는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출범시킨 역사적인 도시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개념의 다자안보협력의 길을 제시한 것은 무척 뜻 깊은 일이었다. 더욱이 오늘날 국가간 분쟁과 같은 전통적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환경오염, 초국가적 범죄, 광역 전염병 등과 같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국가들도 역내 평화·번영의 모델로서 다자안보협력의 길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외에도 정상들은 UN을 중심으로 한 다자국제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테러, 양극화 등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다. ASEM이 기본적으로 대화체(Dialogue)이기는 하나, 정상들간의 비공식적이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공감대(coalition of the will)를 형성해가는 것은 국제 정치·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경제·통상 분야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정상들은 먼저 WTO 다자무역체제가 무역규범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성장과 개발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지난 2006년 7월 중단된 WTO/DDA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그간 DDA 협상이 중단된 이후 국제무대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이 협상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이 WTO 규정에 부합되게 체결됨으로써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기후변화가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구온난화의 주요인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ASEM의 역할 제고, 기후친화적인 기술개발과 투자 촉진, 개도국의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확대, ASEM 환경장관회의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특별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제반 의무이행에 있어 아시아·유럽의 역할강화 의지를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금번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대체에너지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가에너지 장기 확보방안의 하나로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확대하려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라의 장기 에너지 수급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필리핀이 제안한 「바이오연료 기준 조화 및 차량 기술에의 응용」 사업을 비롯한 6개 신규사업이 제출되어 승인을 얻었는데, 이 사업의 추진으로 ASEM 회원국간 경제협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06년 하반기에 최초로 ASEM 노동장관회의(9월 3~5일, 독일 포츠담)와 ASEM 정보통신장관회의(11월 31일~12월 1일, 베트남 하노이)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기존의 경제·재무 장관 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ASEM의 경제분야 협력이 보다 다양화되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유럽간의 금융분야 협력 강화에 기여해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기간 중 7차례의 양자 정상회담과 8차례의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아시아·유럽 국가 정상들과의 친분을 돈독히 하고 양자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또한 우리 대통령이 아시아 조정국 정상으로서 아시아 정상회의를 공동주재하고, ASEM 정상회의 개최식 연설과 폐막 기자회견을 갖는 등 2005년 부산 APEC에 이어 우리의 위상과 리더십을 국제무대에서 한층 부각시켰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지난 10년간 ASEM은 아시아와 유럽간의 대화와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따라 점진적으로 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혀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의 몽골, 인도, 파키스탄 및 ASEAN 사무국과 유럽의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ASEM 가입이 결정됨으로써 이제 ASEM은 아시아 16개국과 ASEAN 사무국 및 유럽의 27개국과 EU 집행위원회를 포괄하는 거대한 지역 협력체로 확대되었다.

우리는 지난 8년 전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가 금융위기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3차 ASEM 정상회의에서 유럽국가들의 주도로 ASEM 신탁기금이 설립되고,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이 파견되는 등 ASEM이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였다는 고마운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서양 속담과 같이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개국 중심의 외교를 펼치던 우리에게 ASEM은 유럽 국가들의 잠재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새삼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현재 ASEM 회원국은 세계인구의 39%, GDP의 49%, 교역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ASEM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의 새로운 외연이라고 하겠다. 특히 동아시아와 함께 ASEM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EU는 일본과 미국을 앞질러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시장이 되었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의 경제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EU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ASEM에 신규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과 터키까지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경우 세계 제1의 경제블록이 될 것이다.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여 주요 선진 경제대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도전을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ASEM을 통한 EU와의 관계 강화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ASEM을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다. 